

할로영산(漢擎靈山)서 솟아나신 벽관님(百官-), 강남천조국(江南天子國)서 솟아나신 도원님(都元師), 칠오름<sup>1)</sup>서 솟아나신 도병서(都兵使) 삼위(三位)는 예촌본향(禮村本鄉)이고, 볼목리(甫木里) 조노기<sup>2)</sup> 본향(甫木本鄉)은 할로영산(漢擎靈山) 서남쪽(西南-)에 벽록담(白鹿潭)서 솟아난 부르못 님<sup>3)</sup> 텁네다.

부르못님 부인(婦人)은 신중부인 데시는다. 흐를날은 부인님을 거느리고 벽록담(白鹿潭)서 츠츠 이초(次次二次) 누려오다 제완지흘<sup>4)</sup>에 오란 보니<sup>5)</sup> 칠오름에 청지에(靑蓋瓦) 흑지에(黑蓋瓦)를 쳐 시난,

『어떤 어른이 앗아신고?』

부인은 퇴평(吐坪)<sup>7)</sup> 허칫(許氏宅) 과수집(寡嫂家)의 가 머쳐두고<sup>8)</sup> 당신 혼자 칠오름 청지에(靑蓋瓦) 친 딜 가 수작(酬酌)을 허연 보니. 혼 어른은 할로영산벽관님(漢擎靈山百官-)이고, 혼 어른은 강남천조도원님(江南天子都元師)이고, 혼 어른은 칠오름도병서(-都兵使) 텁네다.

식 어른이 앗안 바독장기 뛰단<sup>9)</sup> 통생명(通姓名)을 허연 보니. 나(年歲)은 조노기본향(甫木本鄉神)이 우이고<sup>10)</sup> 예촌본향(禮村本鄉神)은 알이난.<sup>11)</sup> 뇌 어른이 타합(打合)할 때, 벽관님(百官-)이 말씀흐דים

『우리가 바독을 뛰어 싱전(勝戰)에 떨어지건 아시국(弟)을 삼곡 싱전(勝戰)이랑 우을 삼기로 흐자.』

『어서 걸랑 그리 흐자.』

뇌 어른이 앗아서 조노기본향(甫木本鄉神)하고 바독을 두는다. 혼 좀 두 좀 뛰는 게 조노기한 집이 이길 듯허야 가니. 예촌본향(禮村本鄉神)은 서이가<sup>12)</sup> 후원(後援)을 허연 이깁데다.

조노기본향이 말씀흐דים

『내 바독은 쪼수다. 어딜로 가쿠가?』

『나는 성(兄)의국이니 우(上)을 츠지 흐겠노라.』

허연 예촌(禮村) 배야기뎐방<sup>14)</sup> 가 좌정(坐定)하고 조노기본향은 볼목리(甫木里) 조노기로 누려

1) 서귀읍 상효리(西歸邑上孝里)의 악명(岳名).

2) 보목리(甫木里)의 속칭.

3) 부르못도와 같음.

4) 서귀읍 상효리(西歸邑上孝里)의 지명.

5) 와서 보니.

6) 앉았는가.

7) 서귀읍 토평리(西歸邑吐坪里).

8) 맡겨 두고.

9) 두다가.

10) 위이고.

11) 밟이니까.

12) 셋이가

13) 가겠읍니까.

와 좌정 흡데다.

예촌본향(禮村本鄉神)은 식 어른이 앗아 바독을 뛰엄더니<sup>15)</sup> 미령박씨(密陽朴氏)가 앞으로 지나 가난

『너는 어떤 인간이냐?』

『난 미령박씨(密陽朴氏)웨다.』

『우리덜이 좌정(坐定)흘 딜 알 수가 엇겠느냐?』

『나도 이제사 오는 질이라노난<sup>16)</sup> 잘 모르오나 알아보겠읍네다.』

알아뵌 와서

『비야기덴밧이 좌정흘 만흡데다.』

『그러면 그디 내 좌정흘 테이니, 당하니<sup>17)</sup>로 그엉허여그네<sup>18)</sup> 상여촌(上禮村) 하여촌(下禮村) 상여돈(上孝敦) 하여돈(下孝敦)을 추지허여근<sup>19)</sup> 버을어 먹으라.』

○ ○ 허여<sup>20)</sup> 미령박씨(密陽朴氏)가 데데손손(代代孫孫) 당하니로 위호는 신당입네다.

조노기한집(甫木堂神) 부른못돈 부인 신딜<sup>21)</sup> 퇴평(吐坪) 누려와 보난, 예펜(女便)이 종경내<sup>22)</sup>가 과히 나,

『무슨 일로 존경내가 과히 나느냐?』

『오좀(小便)을 누레 갔단 돛궤길<sup>23)</sup> 하도 먹고파네 물멩지<sup>24)</sup>를 손에 감안 도새기<sup>25)</sup> 조롬<sup>26)</sup>으로 디물안<sup>27)</sup> 간훼<sup>28)</sup>를 등기여<sup>29)</sup> 내여 먹으난 먹은간 씬간<sup>30)</sup> 허연게<sup>31)</sup> 종경내가 남네다.』

『투더럽다. 나광 ㅋ찌<sup>32)</sup> 좌정(坐定)하지 못훈다. 너는 알뜨르(甫木) 갈 수가 엇이니 퇴평(吐坪) 막 동골<sup>33)</sup>로 좌정(坐定)허영 산쟁이신디<sup>34)</sup> 설례산적<sup>35)</sup>을 얻어먹으민 네발 탄 것<sup>36)</sup> 잘 먹게 됄 거다.』

14) 남원면 예촌(南元面禮村)의 지명.

15) 두고 있더니.

16) 길이라 놓으니.

17) 당에 매인 심방. 그엉신내와 같음.

18) 그엉호다=당(堂)에 전속하여 사제(司祭)하고 지키고 관리하다.

19) 차지하여서.

20) 이리하여.

21) -한테를. 있는 데를.

22) 동경내와 같음.

23) 돼지 고기를.

24) 명주(明紬)의 일종.

25) 돼지.

26) 꽁무니. 밑구멍.

27) 집어넣어.

28) 간회(肝膽).

29) 당기어.

30) 먹은 듯 쓴 듯.

31) 하던데.

32) 나와 같이.

33) 토펑리(吐坪里)의 지명.

34) 사냥꾼한테.

35) 서슬 산적(散炙).

36) 네발동물의 고기.

허연 퇴평(吐坪) 막동골 좌정 흡데다.

한집님은 새금상띠님애길 소첩(小妾)을 삼았는디, 띠님애긴 어심이 쐐고<sup>37)</sup> 투심이 쐐여<sup>38)</sup> 아늠  
그득<sup>39)</sup> 금책(金冊) 좀이<sup>40)</sup> 서붓<sup>41)</sup> 일천장(一千張)의 베릿돌(硯石) 삼천장(三千張)의 진연춤  
먹<sup>42)</sup> 상단궐(上丹骨)엔 상벨문셀(上別文書) 받고 중단궐(中丹骨)엔 중벨문세(中別文書) 하단궐(下  
丹骨)엔 하벨문서(下別文書), 낳는 날은 생산(生產)을 받고 죽는 날은 물고(物故)를 들리고<sup>43)</sup> 저  
승 이승(彼世此世) 오가일통(五家一統)을 츄지<sup>44)</sup> 야, 아길 나민<sup>44)</sup> 여러불법도(如來佛法-) 삼성(產  
神)으로 누려 그늘루고<sup>45)</sup> 열다섯 십오세(十五歲)가 넘으면 호옹지옹<sup>46)</sup> 흥포사리<sup>47)</sup> 석자오치  
(三尺五寸) 일곱자(七尺) 통개걸이<sup>48)</sup> 받아 그늘루는 한집입네다.

조노기 부르못돈(甫木本鄉男神) 산쉐털(山牛毛) 흑전립(黑戰笠)에 운문대단(雲紋大綵) 알을 닦  
저, 주옹새돌림<sup>49)</sup> 풀독<sup>50)</sup> 상미<sup>51)</sup> 허우레비 허튼짓<sup>52)</sup> 냄비단(藍緋綵) 늘짓<sup>53)</sup> 궁(弓)이 바듯<sup>54)</sup> 활  
을 받고 궁이 바듯 쌀(矢)을 받고, 훈 쌀끗을 털뜨리민<sup>55)</sup> 일만군수(一萬軍士)가 도숙어들고<sup>56)</sup> 훈  
쌀끗을 털뜨리민 삼천군벵(三千軍兵)이 도숙어나고 부르못도웨다.

- 西歸邑 下孝里 男巫 姜太玉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735-738.

37) 우김이 세고, 억세고.

38) 투심(妬心)이 세어.

39) 한 아름 가득.

40) 한 줌이 가득한.

41) 붓(筆). 「서-」는 조율음(調律音).

42) 진현(眞玄)참먹.

43) 달게 하고.

44) 낳으면

45) 도와 키워 주고

46) 혼인하니의 뜻. 「호옹지옹」은 신랑 신부가 행차할 때 하인들이 「호오옹」하고 내는 소리.

47) 혼서함(婚書函) 보자기. 곧 신랑집에서 혼서지(婚書紙)와 채단(采綵)을 넣어 보내는 함을 싸는 붉은 보자기.

48) 동개(筒箇)를 걸어매는 끈.

49) 주홍사(朱紅沙) 돌림. 「돌림」은 회장(回裝).

50) 팔찌.

51) 象毛

52) 허울허울 흐트러진 것. 전립(戰笠)의 상모를 표현한 말일 듯.

53) 전립의 간양태를 장식한 깃인 듯.

54) 빠듯하게.

55) 쏘으면의 뜻.

56) 도루 숙어들어오고.